



잉고 니어만

단자적(單子的) 시대로의 진입

지금의 세계는 민주주의와 독재, 정치적 각성과 포퓰리즘적 정체성 정치, 부유층과 빈곤층, 지속적인 환경 착취, 기후 변화와 같은 심각한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잉고 니어만은 자신의 신간 『Monadic Age』(Sternberg Press, 2024)에서 발췌한 이 글에서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다양한 위기가 자유주의 시대를 뒤엎고 모든 사회적 변수를 재창조하는 새로운 자기충족의 패러다임, 즉 모나디즘을 통해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10년의 결혼 생활 끝에 막 이혼한 친구를 만났다. 점점 더 유독하게 변하는 관계를 끝낸 그녀는 세상을 향해 자신을 열어내고 새로운 사랑을 찾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세상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40대 초반이었고, 남자들은 여전히 그녀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놀랄만큼 아름다웠고, 흥미진진한 예술계 경력과 사랑스러운 아이 둘이 있었다. 그녀 또래의 분별력 있는 남성은 대부분 이미 파트너가 있었지만, 그녀는 젊은 남성들에게도 매력을 느꼈다.

내 친구는 젊은 파트너를 만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다만 20대와 30대 초반 남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그들 가운데 정원 가꾸기에 폭 빠진 사람이 많았지만, 그들이 자연으로 돌아간 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정원이 자연이기는 했던 걸까? 섹스를 할 때, 그녀는 강렬한 접촉을 그리워했다. 남자들이 마치 외부에서 이미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마치 셀피를 찍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이 논바이너리이자 폴리섹슈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별 고정관념의 극복을 굳이 새롭고 규범적인 용어를 통해 전달해야 했을까? 폴리아모리에 관심있는 사람은 많았지만, 격렬한 로맨스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관계에서 열정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다른 종류의 정원처럼 울타리를 친 것이다.

내 친구가 최근 겪은 친밀한 만남에 관해 이야기해준 내용은 마치 포스트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의 지침서를 그대로 가져온 것 마냥 들렸다. 대의 민주주의,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유주의적 제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다. 내가 모나디즘(monadism, 단자론)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은 모든 사회적 매개변수를 급진적으로 재창안할 수 밖에 없도록 밀어붙인다.

자유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다. 즉, 계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기 다른 열망만 있을 뿐이었다. 일부 기본권의 제도화가 이뤄지고 막대한 상품 생산이 일어났지만, 그리 잘 진행되지는 않았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갈취했고, 힘을 모아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환경을 망쳤다. 자유주의 국가들은 혁명이 벌어지는 일을 피하려 복지국가로 재탄생했고, 부와 기회를 재분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다른 국가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착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식의 착취가 크게 줄어들자마자 복지국가 내부의 긴장과 국가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친밀한 관계의 전개도 이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이었다. 부르주아식의 결혼에서는 이성애라는 이원론만 허용되었다. 남편은 직업, 정치, 취미, 불륜 등 엉뚱한 야망을 추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내는 주로 집안일과 모성애에 국한되었다. 해방과 성적 해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사람들이 부르주아 결혼의 제약을 극복하게 되면서, 이들은 글로벌 시장과 같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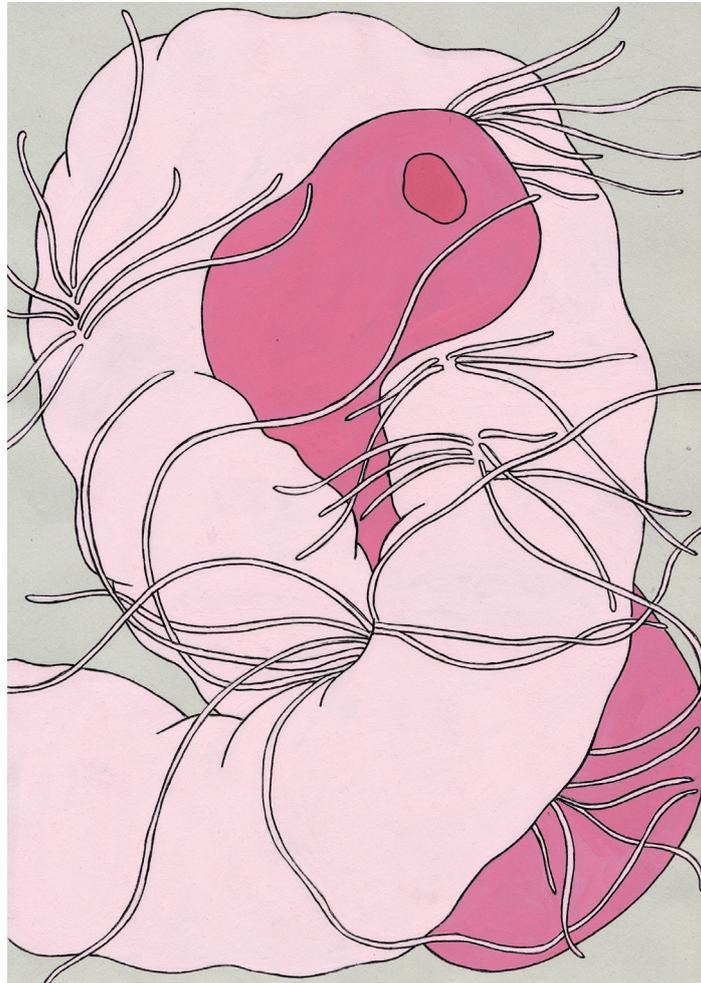
현재, 포스트 자유주의적은 두 가지 경향으로 전개 중이다. 한편에서 사람들은 모든 인간과 비인간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공동체(여러 종을 넘나드는 친족 관계, 다양한 정체성의 무지개)를 상상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필터 버블, 안전 공간, 빗장을 건 공동체, 특별 구역, 재난 대비)을 통해 자신을 고립시킨다.

모나디즘은 서로 모순적인 듯 보이는 이 두 가지 성향이 세계에 대한 비슷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식한다. 한 쪽은 더 낙관적이고 다른 쪽은 더 비관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 의존이라는 것이다. 저돌적인 기생충에서 글로벌 생태계의 선량한 참여자로 변화하는 것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작업이다. 고도로 지배적인 종인 우리 인간은 조화를 추구하기에 앞서 환경과



맺고 있는 강압적인 상호작용을 자제해야 한다.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남용을 최대한 줄여야만 한다. 모나디즘은 이러한 두 성향을 종합한 것이다.

개인은 분할될 수 없는 것이라는 부정적 정의로 규정되는 반면, 모나드 (monad, 그리스어로 “단일성”을 의미하며 “단자(單子)로 번역)는 자기성취를 뜻한다. 영지주의에서 ‘모나드’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최고의 신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가 쓴 『모나돌로지』(1714)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신이 미리 결정한 계획에 따라 공존하는 영혼과 동의어로 쓰였다. 나는 우리가 혹은 우리의 후손이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등위적이며 외부의 영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로 진화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점점 더 그러한 상태를 이루려는 열망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술 발전은 이와 같은 사회 변화의 원동력으로 존재해왔다. 자유주의 시대는 산업화(대량 생산, 대중 매체)를 통해 추진되었고, 인간의 노동력과 권력이



엄청나게 증폭되었다. 생산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문제는 자유주의 시대의 주요한 정치적 과제였다. 단자적 시대는 결국 인간의 도움이나 이해 없이 (AGI, 즉 “특이점”으로) 지구상의 모든 것을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연산(자동화, 대화형 미디어)에 의해 추진된다. 지금의 주요한 정치적 과제는 산업화를 통해 이미 전개된 파괴적 힘을 배경으로 하며, 이러한 연산의 잠재력을 어떻게 유용하게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단자적 시대는 분명 핵무기 시대와 함께 시작되었다. 핵폭탄의 폭발은 가시성과 즉각성이라는 독보적 파괴력을 통해 인류와 맞닥뜨리게 된다. 각국 정부는 병커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고, 공들여 밀폐한 핵발전소에서 원자력을 길들이려 애쓴다. 이와 동시에 핵폭탄 보유 여부는 타국의 침략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며, 원자력 보유는 에너지 독립을 보장한다. 그러나 핵무기는 평등주의적 방식으로 국가를 보호하는 대신 소수의 핵 강대국이 과두체제 안에서 전례 없는 제국주의적 힘을 얻었다. 또한 원자력의 사용으로 인해 긴 시간에 걸쳐 지속되는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재앙적 멜트다운이 벌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디지털화는 그 반대로 움직인다. 처음에는 자유주의 시대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 이는 디지털화가 도처에 존재하며 세계화가 제약 없이 펼쳐질 수 있는 기계와 사람의 네트워크인 인터넷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컴퓨터의 조작(해킹,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과 마음의 조작(가짜 뉴스, 클릭베이트, 반향실 효과, 심리 조종)을 파괴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도 쓰이고 있다. 이제 컴퓨터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보호하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이 활용된다. 중요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컴퓨터는 마치 단자(monad)처럼 인간으로부터, 그리고 서로에게서 보호된다.

하나의 모나드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신체와 분리할 수 없는 한 부분으로의 정신 뿐이다. “나”라는 것은 영혼이나 자아처럼 뚜렷하게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지닌 전생명체와 사이보그적 신체의 총체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교류하지만 그럼에도 하나 뿐이며 단일한 자체적 부족, 즉 자아라는 부족과도 같다. 귀족 사회는 타인의 노예화를 바탕으로 하며 부르주아 사회는 자신의 노예화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단자적 사회는 자신을 고유한 존재로 재창조하는 것에 따라 이뤄진다.

모나디즘을 자기중심주의로 혼동하기 쉽다. 하나의 단자로서 우리는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꺼리며, 이는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다기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미리 규정하는 식의 연대를 강요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과 소통하다 보면 그 무엇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없게 마련이다.

모나드로 살아가는 이들은 동의와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상호작용하기 위해 자신 생각이 비슷한 이들, 즉 자발적인 부족으로 이뤄진 커뮤니티로 스스로를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끊임없이 유동적이거나, 굳이 등위적이지는 않더라도 대체로 자율적인 상태로 결속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공급망에서 독립되어 음식과 에너지, 기계의 대부분을 자동적으로 생산한다. 모나드에게 국가란 상호 합의라는 거대한 집합체 내부에 존재하는 또 다른 한 무리에 불과하다. 시민권은 타고난 권리라기보다 멤버십이나 증표와 같은 성격을 띤다. 정부와 법률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약속은 마치 게임에서처럼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퇴장할 수 있는 선택지 뿐만 아니라 입장할 기회도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모나드는 복잡한 도시의 주민으로 살아가면서도 무작위한 만남이 지닌 무언의 폭력은 피한다. 로봇이 그들을 충분히 돌보고, 이동시키고, 관리하고, 만족시키며, 소통과 오락은 대부분 가상으로 이뤄진다. 집은 그 크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사무실이 될 수 있고, 공장, 농장, 학교, 병원, 감옥이 될 수 있다. 직접 거리에 나가더라도 그 누구도 만날 필요가 없다. 현실 속 거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조차 없다. 집과 영역을 공유하는 대신 그걸 가지고 다니거나 적어도 어디에 가든 가상으로 만들 수 있다. 가족을 시작하는 대신, 돌보기 쉽거나 고민할 필요 없이 교환할 수 있는 반려동물, 로봇, 아바타, 문신 따위의 존재로 자아의 부족을 확장한다. 우리는 *더 많은 신체 기관이 있는* 단자적 몸 안에 구현된 채 이러한 것들의 수용을 자신의 일부로 느끼게 된다.



저자 소개

잉고 니어만은 사변적 작가로, 스텐버그 프레스의 ‘솔루션 시리즈’의 편집자다. 최근 발표한 저서로 《olution 295–304: Mare Amoris》(2020), 《Burial of the White Man》(에릭 니들링 공저, 2019), 《Solution 275–294: Communists Anonymous》(조슈아 사이먼과 공동 편집, 2017)이 있다. 니어만은 자신의 소설 《Solution 257: Complete Love》(2016)를 바탕으로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관능적 사랑의 재분배를 시험하고 복돋는 프로젝트인 <Army of Love>를 시작했다. 현재 바젤의 스위스 응용과학대학교 (HGK Basel FHNW) 예술 젠더 자연 연구소에서 강사로 재직 중이다.



편집: 잉고 니어만

편집: 아니타 이안나키오네

한국어 번역: 박재용

일러스트레이션: 에바 파브레가스

그래픽 디자인: 아나 도밍게스 스튜디오

한국어판 그래픽 디자인: 박지현

© 2024, 잉고 니어만, 에바 파브레가스 & 와일드 퍼블리싱

스위스 바젤 응용과학대학교(HGK Basel FHNW) 예술 젠더 자연 연구소(Institute Art Gender Nature) 소속 기관